



“미얀마인이 된다는 건 불교도가 되는 것”



▲탁발하는 승려와 보시하는 신자

◀중 모양인 라타나 폰 켈디 불탑



천덕염의 건축인문기행

황금빛 신비의 나라 미얀마

⑧ 불교가 삶인 미얀마

미얀마는 국민의 90% 정도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다. 불교는 네팔(지금의 인도)에서 시작되어,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꽃을 피웠다. 네팔과 인도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와 성불지인 보드가야, 설법지인 사르나트와 열반지인 쿠쉬나가르 등이 있어 불교 최고의 지위를 갖는다면 미얀마는 불교가 거대한 공동체인 국가를 어떻게 일체화하며 일상의 삶을 불교로 자리매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활의 일부다. 불교신자들에 대하여 대단한 자긍을 느끼기도 하다. 미얀마의 불교와 우리의 불교는 사뭇 다르다. 종교적 절대자로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같지만 경전의 해석이 다르고 불교의식이 다르고 사찰의 형태가 판이하고 승복이 다르다. 특히 믿음의 열성이 차이가 많이 난다. 자신은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입어도 사원을 꾸미고 가구는 데는 결코 인색함을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파고다의 금빛 장엄은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이 모여 만들어진 찬란한 유산이다.

마음챙김, 위빠사나 명상

위빠사나 또는 관(觀)은 불교의 명상법이다. 선정수행으로 명상은 해탈의 수단이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상과 무아를 알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지혜를 닦는 수행이기도 하다. 지(止)는 생각을 그치고 마음의 동요를 진정시키며 본원적인 진리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며, 관(觀)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지혜의 작용이 되어 사물을 진리에 합치시키며 올바르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오래된 명상법이자 전 세계적 명상으로 자리 잡은 위빠사나 명상의 본산이 바로 미얀마다.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은 다양한 수행전통에 존재한다. 하지만 붓다는 선정 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 세상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위빠사나를 시도했다.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하는 뇌에 수면과 같은 휴식을 주는 시간이 바로 명상이다. 우리에게 명상은 도인 또는 불자들이나 하는 종교적인 것으로 한정하나 미국의 중심부 뉴욕에서도 명상센터는 많이 생기고 있으며 맨해튼의 직장인들은 점심 식사를 빠르게 하고 센터에서 명상을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탁발과 보시

미얀마의 사원구성은 대승불교 사원인 우리나라 사찰과 사뭇 다르다. 미얀마에서 승려들은 사원에 있지 않고 짜웅(kyaung)이라고 불리는 수도원에 따로 거주하고 매일 아침 거리로 나가 탁발을 해야 한다. 붓다가 열반에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굶임 없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수행에 전념한다. 이처럼 자신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대중에게 말씀을 전하여 깨닫게 하는 것을 중시하는 대승불교와 미얀마의 상좌부불교는 근본이 다르다.

미얀마에서 길 옆을 보면 물 항아리가 놓여 있는 것이나 탁발하는 스님을 쉽게 볼 수 있다. 그 항아리는 마르기 전에 누군가가 계속 물을 채워 놓는데 목마른 사람을 위한 배려이자 나눔의 전통이다. 그들은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등 대부분의 기념일마다 병원과 양로원, 보육원을 돌며 보시하고 새벽마다 탁발하는 스님에게 공양을 한다. 그들에게 이러한 보시는 종교적 계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나 몸에 배어 일상생활이다.

스님들은 새벽에 맨발로 거리에 나와 집과 상점을 다니며 탁발을 한다. 맨발로 새벽 공양에 나서 음식을 얻어먹는 탁발은 불심이 지극한 그들에게 당연히 거처야 할 영예로운 고행이다. 그런데 요즘 비구들은 바리에 쌀밥을 주로 받는데 여성 수행자인 딸라신은 밥이 아닌 쌀을 받는 경우가 많다.

단기 출가의식 신뵘(Shin Pyu)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가뵈와 진짜 남자이고 미얀마에서는 승려가 되어봐야 진짜 남자다. 한국의 남자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이다. 한국의 남자들이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누구나 반드시 가야하는 힘든 군대생활 이야기이다.

미얀마 남자들은 일상에 한 번씩 머리를 쥐고 단기승려 생활을 하는데 불교의 출가 의식인 신뵘이다. 국민 90%가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남자들은 대부분 10대 시절 한 번씩 단기간의 출가를 하여 힘든 승려 생활을 거친다. 보통 1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 정도 사원에서 승려 생활을 하는 것이다. 성인식이기도 하는 신뵘의식은 부처님이 왕위를 버리고 불가에 출가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과정이다. 음력 6월 보름에 시작하는 신뵘의식은 일종의 마을 축제로 날짜를 정해서 공동으로 의식을 치르게 된다. 그날에는 악단과 놀이패가 먼저 가면서 흥을

돋우고 그 뒤로 아이들이 꽃을 들고 왕이나 왕비처럼 화려하게 차려 입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축하한다.

부유층은 이 때 아이들을 자가용에 태우지만 가난한 부모들은 소나 말에 태우고 어려운 집안에서는 부모가 목마를 태운다.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는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 아이가 승려 체험을 하는 곳에 가서 공양물을 바치는데 아침 승려들의 탁발이 끝나면 아이의 머리를 쥐고 머리카락을 흰 보자기에 싸서 인근에 있는 불탑 아래에 묻는다. 그 후 고승은 아이에게 동근 밥그릇인 발우를 건네고 수련승으로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서약을 하는 것으로 의식이 끝난다. 이후부터 아이들은 승려생활 체험을 하게 된다. 부모님은 이 때 필요한 가사, 탁발, 면도 칼, 허리끈, 바느질 도구 등을 기증한다. 이러한 의식은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만 꼭 하여야 할 의식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돈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한없는 불탑 숭배

미얀마인들의 불탑에 대한 숭배는 너무나 지극하고 그치지 않는다. 탑이 곧 부처인 셈이니 부처

를 통하여 내세를 위하여 소망하는 것이다. 국토 전체 경향각지의 곳곳에 거대한 불탑과 불교사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이곳을 찾아 그들의 염원을 기도한다. 유럽의 중심에 성당이 자리하듯, 미얀마의 중심에는 거대한 불탑이 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불탑과 사원은 단지 기도를 하기 위한 공간만이 아니다. 믿음이 찬만하고 웃음이 소박한 국민들은 불탑을 데이트 장소로, 만남의 장소로, 휴식 장소로 즐겨 찾는다. 그래서 불탑 앞에는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다른 쪽에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담소하는 한가한 풍경도 보인다.

미얀마를 비롯하여 스리랑카와 태국 등 상좌부 불교국가에서는 사원의 영역에 들어가면 반드시 맨발이어야 한다. 맨발은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을 해체시킨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수백년 동안 만든 이 신성하고 순한 에너지가 차고도 넘치는 곳, 그리고 모두 맨발로 인해 평등한 곳, 미얀마 민초들의 휴식과 사랑이 있는 곳, 그렇게 파고다는 미얀마 사람들의 안방이고 거실이며 사랑방이고 행랑채인 것이다.

/전남대 연구석좌교수



불상을 관음시키는 불자.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